|  |
| --- |
|  |
| 포항 ‘행복한 교회’를 다녀와서’ |
|  |
| [2017년 국내선교 간증문] |

**수지 5지구 직장마을**

**향유옥합 6목장**

**조경아C**

이번 선교는 저의 일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계속 저의 마음속에 부담으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 아이들 둘을 해마다 국내선교와 해외선교를 보내면서 뿌듯하면서도 제가 직접 하지 못한 마음에 눌림이 늘 있었습니다. 작년에 목자가 되어 선교를 가시는 분들을 목장에서 함께 중보기도를 하면서 ‘다음 번에는 나도 직접 가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모임에서 올해 2017년 국내선교에 대한 안내를 받았을 때 선교날과 제 시간표를 조정하는 것과 아이들이 걱정이 되었지만 그냥 모든걸 선으로 이끌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마을장님께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선교기간 동안 수업 시간표도 조정되고 가족들의 뜨거운 기도와 지지를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를 무상무념으로 선교기도회와 주방팀 간식 준비를 하며 보내다 막상 당일 아침이 되니 얼마나 긴장되고 갑자기 식은땀도 나던지…. 그러면서 작년에 둘째 아이가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는 날 아침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 가지 않겠다’고 해서 나무라던 저의 모습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 이런 기분이구나. 당일 날의 마음이… 그날 우리 ~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제 아이를 야단쳤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버스에 타서 출발할 땐 아침의 긴장감과는 달리 소풍을 가는 것처럼 들떴습니다. 낯선 포항에 도착해서 그 첫인상은 삭막함과 쓸쓸함이었지만 1박 2일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 7월의 1박 2일의 일정은 말로다 표현하기 어려운 직접 경험해야 알 수 있는 정말 짧고도 많은 일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형언할 수 없는 경험이 많은 분들이 해마다 선교를 떠나시는 이유구나~!’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또한 저의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께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고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느끼기 어려운 분들께 꼭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의 몇 가지 제가 받은 은혜를 여기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주는 받는 데에 익숙하고 섬김에 너무도 낯설어서 아무 소리소문 없이 서로를 섬기시고 먼저 적극적으로 더 일하려고 하시는 모든 선교팀원의 모습들이 저에겐 정말 은혜가 되었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손해를 보려고 하고 좀 더 편안 하려고 하고 남보다 덜 일하고 대우를 받는 것을 현명하다고 여기고 아무 보이는 대가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여기는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난과 질책을 받으며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선교지에서의 성도님들의 모습은 정말 세상의 시선을 무색하게 할 정도의 사상의 섬김이었습니다. 처음 뵙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발을 만지며 마사지 하며 안마, 화장, 영정사진 오락등으로 섬기시는 모습들…. 예수님으로 오신 외로운 노인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들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이나 행동이 섬김에 너무 둔하고 느린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직장마을에서의 이번 선교는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참여인원이 2~3명 정도였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7명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장마을의 특성상 목장 외에서는 뵙기 어려운 분들과 함께 주방의 일을 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선교에서 가장 힘들다는 사역이었지만 이번엔 식사를 준비하지 않아서인지 힘들다기보다는 재미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의견을 맞춰가며 음료를 하나 만드는 것도 신이 났고 그래서 전에 경험이 없어서 너무 몰라서인지 신선하고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서로간에 더 격려해주고 같은 팀으로 화합하며 끈끈해지는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고 또한 다음날 아침에 저희 주방팀과 나누었던 큐티 나눔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역을 강조하셨구나……’하고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올 해의 선교를 경험하며 제가 한 일보다 받은 사랑과 은혜가 많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며 저희 5지구 선교팀과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